

## 지방자치·종합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김 종식 광주 서구청장

## “430억 들여 신·구도심 양극화 해결”

“지난해 추진한 서민생활안정 사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법에 마련되면서 구 재정이 조기 정상화됨에 따라 올해는 서구의 가장 큰 현안인 신·구 도심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일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은 “임진년 새해 행정의 최우선은 서민생활안정에 두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국·시비 확보를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올해 서구의 5대 핵심사업으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현장행정 및 직소민원실 운영강화 ▲지역균형개발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 ▲문화 서구 조성을 꼽았다.

그는 올해 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들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구정 운영의 핵심이 ‘복지’에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가장 먼저 노인과 서민생활안정에 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노인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월동대책비를 확대 지원하고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 및 시설·비품 보완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마륵동 공군단 약고 조기 이설

양동시장 현대화 사업 확대

다문화가족 자립기반 조성

또 지난해 서구민 한가족되기 배가운동으로 후원자가 4배 이상 증가하고 수혜자도 3배 이상 증가한 만큼 올해도 4만1000여 명에 이르는 서구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올해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을 확대 추진해 취약계층 주민들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구민 취직시켜주기 운동,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 여성의 권익보호와 다문화가족의 자립기반 조성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구상 중이다.

서구의 가장 큰 현안인 신·구 도심 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총 430여 억 원을 투입, 7개 지구에 대해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김 청장이 총력을 기울일 부분이다.

우선 현지개방방식으로 추진중인 농성·유촌·서창동 등 6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LH 공사에서 시행중인 화정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올해부터 시작되는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마륵동 공군단 약고 조기 이설 및 서창동 일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교육·문화 중심지구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 중인 양동시장 현대화 사업도 올해 더욱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조성과 전신지중화 사업, 안내간판제작 등 현대화는 물론, 고객문화쉼터와 특산물 전시판매장 등도 조성해 도청적인 브랜드와 복합문화공간이 공존하는 특화시장으로 만들어나갈 요량이다.

김 청장은 “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32만 구민과 850여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사회적 약자 보호 최선 다할 것”

## 박보영 대법관 취임

순천 출신인 박보영(51·16기) 신임 대법관이 3일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와 보호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법관은 수원지법·서울지법·

밝혔다.

이어 “법정 밖에서 만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여성, 가족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적 해결책을 고민해 보겠다”며 “법을 통한 이들로운 세상이 도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지난 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미뤄왔던 이들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대법관 2인 공석사태는 42일 만에 마무리됐다.

박 대법관은 수원지법·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냈으며, 김영란(56·11기)·전수안(60·8기) 대법관의 뒤를 이어 사법

사상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됐다.

김용덕(55·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도 이날 “재판은 개별 사건에 적합한 법리를 찾아 분장을 해결하는 것 이지만 나아가 정의로운 보편적 규범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그 규범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애정에서 출발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와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형평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지난 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미뤄왔던 이들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대법관 2인 공석사태는 42일 만에 마무리됐다.

특히 민주통합당권을 잡기 위해 불꽃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당대회 주자들도 이날만은 선거운동을 멈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연합뉴스

국회가 지난 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미뤄왔던 이들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대법관 2인 공석사태는 42일 만에 마무리됐다.

특히 민주통합당권을 잡기 위해 불꽃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당대회 주자들도 이날만은 선거운동을 멈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연합뉴스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화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영업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초천 물건 010-5879-000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www.assetkorea.co.kr

www.assetkorea.co.kr